

주사랑교회 소식

1. 환영 및 여는 찬양

주사랑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영혼육의 건강한 복도 많이 받으세요. 매 주일 낮 10시 45분부터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2. 북한선교주일 / 제20차 총회 북한선교대회

주관 :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 북한선교위원회
 일시 : 2024년 4월 7일(주일) 오후 7시
 장소 : 은샘교회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매곡이아랫길 9-6)
 예배 : Youtube 방송 영상 / 주보 참조

3.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2024년 4월 11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5주년을 맞이합니다. 3.1 운동 정신에 입각하여 '백성이 주권을 갖고 나라를 통치하는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자'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이념을 성문화하고 세상에 공포한 뜻깊은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며 복음을 전하는 나라와 부흥을 주심에 감사하는 주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4.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2024년 4월 10일(수)은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자유민주주의 실현에 앞장 서는 좋은 일꾼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과 일꾼 선출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4/1(월)~10(수) 새벽 예배 : <나라와 민족, 복음통일선교 구국 기도화>

5. 구역예배 / 전교인 전도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구역모임이 있습니다. 두 번째 모임 장소는 4월 11일(목) 박제연 집사님 가정에서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3-6시에 전교인 전도가 교회 앞 공원에서 있습니다.

6. 故 최종욱 집사님께서 천국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소천 : 2024년 4월 1일(월) 새벽 4:35
 장지 : 수원연화장 승화원-부부단(故) 박옥자 집사님과 합장
 유족 : 최선오(1남), 최인호(2남)

7. 2024년 4월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음력 2.23 ~ 3.22)

4/2(화)-최재성 성도(-2.24) 4/7(일)-이재희 어린이 4/14(일)-한은총 어린이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주일대표기도



04/07	김혜숙 권사
04/17	정애자 권사
04/21	이가을 권철
04/28	박제연 집사
05/05	한은총 어린이
05/12	이광근 안주자
05/19	임명자 집사
05/26	임명숙 집사
06/02	김혜숙 권사

행사계획

날짜	행사내용
4/1~10	나라와 민족을 위한 새벽기도회
04/07	총회 북한선교대회 (은샘교회)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감사주일 장애인선교주일/장기직원회(1/4)
04/08	무슬림 라마단 종료일
04/09	경기서지방회 교육부 모임(11시)
04/10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 지역구 254명 비례대표 46명
04/21	과학의날 / 창조과학제미나
04/28	선교헌신예배(북한선교위원회)
05/01	첫날맞이 월삭예배 (성천예식)
05/05	어린이주일 / 어버이주일
05/12	스승의 주일

주일 사랑 운영

요일	운행안내
주일	교회출발(9:45)▶탐동(10:00) ▶화서동(10:10)▶세류동(10:20) ▶교회(10:30)
귀가	교회출발(13:30)▶탐동(13:40) ▶화서동(13:50)▶동탄(14:20) ▶화성군 송산면 용포리(15:00)
평일	담임목사 연락(010-4724-3562)

예배안내

구분	시각	간
주일오전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2부 낮 1:00	
주일어린이예배	낮 1:00	
주일학생부예배	낮 1:00	
주일청년부예배	낮 1:00	
수요저녁기도회	저녁 7:30	
금요성령기도회	저녁 7:30	
새벽기도회(월~토)	새벽 5:30	
화요중보기도회	낮 2:30	
목요구역예배	낮 2:00	
Who made the world?	(상담 후 진행)	
Thinkwise(마인드맵)	(상담 후 진행)	
쉐마학당	(상담 후 진행)	



주사랑 7권 14호 | 2024년 4월 7일 | 2024년 표어: (행 9:31) 성령과 동행으로 평안과 부흥 누림
 창립 2017.11.25 | 부활 후 두 번째 주일 / 북한선교주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주사랑교회
 Jusarang Korea Evangelical Holiness Church
 은혜와 진리의 말씀공동체
 치유와 회복의 은사공동체
 섬기고 전하는 사랑공동체



통일선교주일

제20회 북한선교대회

일시 : 2024.4.7(주일) PM 7:00
주최 :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북한선교위원회
강사 : 강디모데 전도사
장소 : 은샘교회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신명기 2:3)**

이름 :

주사랑교회 사명서언

- ① 오직 예수만을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공동체로써
- ②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 ③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 ④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와 가정을 세워가고
- ⑤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다음 세대를 리더로 세우며
- ⑥ 불신자들에게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며
- ⑦ 민족복음화와 통일선교에 이바지하며
- ⑧ 열방과 세계에 복음으로 선교하는 교회

섬기는 사람들

담임목사 : 한승훈 목사 (010-4724-3562)
 교육간사 : 임명순 사모 (010-8177-0617)
 찬양율동 : 아하바
 피아노 : 임명순 한은총
 드럼 : 한희락 한태민
 예배영상 : 한성결
 대표기도 : 김혜숙 권사 (다음주: 정애자 권사)
 헌금위원 : 한희락 학생 (다음주: 이재우 야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정자로 618,
 3층 301호 (세류3동, 성원(△상가))
 Tel. 031) 234-1691
 Fax. 070) 4015-1691
 0504) 472-3562
<https://jusarang.org>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Welcome to Jesus Love Church

주사랑교회를 찾아주신 형제, 자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담임목사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은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의 우상인 다곤 신전에 두었더니 나타난 현상은 무엇인가요?(삼상 5:3~4)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② 법궤를 강탈한 블레셋에게 하나님은 어떤 진노로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나요?(삼상 5:9)

그것을 옮겨 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시라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가 나게 하신지라

③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벤스메스로 보내려고 수레에 함께 실은 우상은?(삼상 6:4)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효대로 () 다섯과 () 다섯 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나

④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실은 수레만 벤스메스로 보낸 이유는? (삼상 6:8-9)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벤세메스로 가면 ()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인 줄 알리라 하니라

⑤ 벤세메스 사람들이 법궤를 함부러 다루었다가 당한 고난과 깨달음은? (삼상 6:19~21)

벤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 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벤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랏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 가라

⑥ 법궤가 20년 동안 이스라엘 변방에서 방치된 곳과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삼상 7:1~2)

기랏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살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이십 년 동안 오래 있었지라 ()

향기로운 삶 :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5주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시 33:12, 시 144:15)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운동을 필두로, 자주독립하게 될 새롭게 세워야 할 건국의 비전을 갖고 대한민국임시정부가 1919년 4월 11일 세워지게 됩니다. 이때 대한민국 헌법의 기초가 될 10개조 헌장이 아래와 같이 선포됩니다. 주시랑교회 성도님들은 아래의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시고 낯선 의미나 마음에 와 닿는 단어에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통치한다.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하다.

제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종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통신, 주소 이전, 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누린다.

제5조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공민 자격이 있는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제6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 납세 및 병역의 의무가 있다.

제7조 대한민국은 신(神)의 의사에 의해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고 나아가 인류문화 및 평화에 공헌하기 위해 국제연맹에 가입한다.

제8조 대한민국은 구 황실을 우대한다.

제9조 생명형, 신체형 및 공창제(公娼制)를 전부 폐지한다.

제10조 임시정부는 국토 회복 후 만 1개년 내에 국회를 소집한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몇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첫째 새롭게 건국해야 할 나라의 이름입니다. “대한민국”은 “大韓”과 “民國”의 의미가 합쳐진 통치체계를 의미합니다.

<대한>은 고조선 이후 한반도의 역사가 보증하는 영토와, 그 영토 속에서 역사를 공유하는 민족의 개념을 통합한 의미로써, 이 나라의 새로운 주권을 갖는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 백성의 특징을 <인민, 공민>으로 표현하고 있죠. 인민은 ‘국가와 사회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을, 특히 공민은 ‘한 나라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 사람들’을 의미 합니다.

<민국>은 한반도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통치체계를 말합니다. 임시정부 헌법 제 5조를 보면 <공민>을 언급합니다. 공민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대한민국의 인민이면 누구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 나라, 다시 말하면 백성이 다스리는 나라, 민주주의 체계를 천명하는 것입니다.

임시정부 헌법 제 1조에는 <민주공화제>를 천명하는데, 공화제는 ‘군주가 없는 나라’, ‘시민권자들이 협약하여 공동으로 국가를 소유하고 다스리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임시정부 헌법 제 2조에는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통치>하는 나라를 언급합니다. <의정원>은 임시정부의 입법부 역할, 지금시대의 국회에 해당하는 입법 의결기관을 말합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것은 헌법 제 4조에 <종교의 자유>를 천명하고, 헌법 제7조에는 ‘신(神)의 의사에 건국한 정신을 이어받아 세계 평화를 위해 공헌하는 나라’로 소개하는데, 당시의 민주주의의 사상적 모델이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였다라는 점과,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핵심이 종교의 자유였으며, 이는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영원을 담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통치이념은 당시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자 했던 신앙의 선배들의 기도와 피와 헌신의 열매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와 모든 인류 앞에서 거룩한 예수 중심의 신앙으로 인류의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다	같	이
찬송가..... 찬 208장.....	다	같	이
대표기도.....	박제연	집사	
성경봉독..... 열왕기상 4:1~19 (구 258).....	정애자	권사	
통합과 조화와 평화로 번영하는 나라			
삶의 나눔.....	다	같	이
합심기도.....	다	같	이
헌금찬양..... 찬 210장.....	다	같	이
주기도문.....	다	같	이

■ 들어가는 말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지혜로(3:12) 왕정은 체계가 잡혀갑니다. 솔로몬은 행정부에 제사장, 서기관, 군사령관, 지방 관장 감독관, 왕궁 감독관, 부역 감독관을 배치해 이스라엘의 종교, 정치, 군사, 경제 등을 돌보았습니다(1~6절). 이를 바탕으로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 땅을 12개 행정구로 재배치했고, 열두 지방 관장을 두었습니다. 조직 개편으로 이스라엘은 12지파 중심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중심의 중앙집권체제로 탈바꿈합니다(7~19절).

특이한 점은 비록 솔로몬이 많은 아내를 뒀지만(11:1~3), 솔로몬의 자녀로 소개된 사람은 딸 다밧과 바스밧(11, 15)과 아들은 르호보암(9:31)뿐입니다. 다밧과 바스밧의 남편은 각각 벤아비나답과 아히마아스로, 솔로몬이 개편한 12지방관장의 요직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이는 왕의 자녀를 고관으로 세웠던 씨족 중심에서 벗어나, 신앙과 충성과 능력이 있는 자에게 관료 직분을 맡기는 실력 중심의 국가 경영을 이루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공동체를 겸손과 공의와 정의와 사랑으로 세우기기 위해 대한민국을 섬기는 교회와 성도가 갖추어야 할 지혜는 무엇일까요?

첫째, 국민 대통합을 이루는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1~4).

다윗이 솔로몬에게 물려준 것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로 구성된 통일왕국입니다. 솔로몬의 왕위 등극은 남쪽 유다와 북쪽 여타지파 간의 팽팽한 긴장 관계가 형성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밝히고 있는데(1), 이는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에게 약속한 견고하고 영화로운 왕국(3:13, 삼하 7:11~13)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도움이 없었다면, 열두 지파가 하나가 되어 왕권을 인정하는 나라를 만들어가기란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왕을 겸손하게 하고, 다른 모든 지파들을 겸손하게 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솔로몬의 통치 초기에는 <온 나라가 하나 됨>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온갖 이권 주장으로 분열된 대한민국의 현실 앞에서 국민대통합의 문제는 정치인들만의 문제로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다윗이 하나님께 보였던 겸손과 성실과 공의와 정직을 솔로몬이 이어받았기 때문임을 증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딤후 2:1~2)고 권면합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딤후 2:3~4)고 말합니다.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섬겨간다는 것은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다툼과 허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먼저 겸손하고 성결하며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와 성도가 주님의 주권과 통치의 질서 앞에 순종하는 새 이스라엘을 통해 창조하기를 바라십니다.

둘째, 모든 세대가 조화를 이루는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5~6).

솔로몬은 다윗이 마련한 행정 체도를 기초로 새로운 상황에 잘 어울리게 체도를 정비합니다. 다윗 시절에 활약한 노련한 일꾼들을 중용할 뿐 아니라, 믿고 쓸 수 있는 그들의 자녀들 또한 솔로몬의 최측근으로 세웁니다. 더 나아가서 지방 장관들을 관장하는 아시라(6), 왕의 ‘친구’ 사밧(5), 궁을 관장하는 아히살(6) 등 새 직책에 새 인물도 과감히 등용합니다. 과거의 유산을 존중하면서 제사장을 가장 앞서 거론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자를 중요하는 등 신앙적인 안목으로 안정감 있게 통치합니다.

오로지 경제적 성장에만 촉각을 곤두세워왔던 대한민국 사회에 있어서 세대간의 불소통의 문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모든 세대가 대화와 소통을 통해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며,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어린 세대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벧전 5:3)고 권면합니다. 또한 젊은이들에게는 “젊은 자들이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리”(벧전 5:5a)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벧전 5:5b)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벧전 5:6).

셋째,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7~19).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열두 지역으로 나누고, 각 지역마다 관리자를 세웁니다. 각 지역은 1년 동안 한 달씩 돌아가면서 왕과 왕실을 위해 양식을 공급했습니다(7). 전쟁 걱정 없이 생업에 종사하여 꼬박꼬박 세금을 바치는데도, 전혀 힘들지 않고 행복할 만큼 이스라엘을 평화롭고 풍요로웠습니다. 모든 교회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리라고 보내신 ‘왕 같은 제사장’이며, ‘영적 통치자들’입니다(마 19:28).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이 임하기를, 세상에 전쟁이 그치고 공존과 공생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 결론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해져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신실함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솔로몬의 왕국은 다윗 언약에 기초한 나라입니다. 모든 조직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지향할 때,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조직은 망하게 됩니다.